

피부암 효과적으로 절제 ... 완치율 가장 높은 치료법

건강 바로 알기 모즈 미세도식 수술

김민성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60대 여성 김모씨는 몇 개월 전부터 오른 쪽 볼 부위에 발생한 검은색의 피부병변이 발생해 점으로 생각하고 레이저로 제거했다. 그러나 같은 부위에 점이 계속 재발했다. 이에 조직검사를 권유받고 조선대병원을 방문했다. 이후 피부과에서 조직검사 시행 후 기저세포 암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김씨는 '모즈 미세도식 수술'을 제안받았고 2주 후 수술을 시행했다. 피부 병변은 0.5mm 크기 정도로 작았으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1cm 이상의 주변 암세포까지 제거 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퇴원했다. 이후 재발과 특별한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 중이다.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란?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란 피부암을 효과적으로 완전절제하기 위한 특수한 수술방법이다. 이 수술은 다른 피부암의 치료방법과 달리 그 자리에서 현미경으로 피부암의 절제 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피부암의 치료방법 중 완치율이 가장 높다.

일부 피부암은 혈관, 신경 또는 연골을 따라 깊이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보는 것

피부암을 뿌리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제거 위한 수술방법
현미경으로 절제 정도 확인 ... 정상조직 보존 흉터 최소화

보다 속으로 깊고 넓게 뿌리처럼 퍼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한 재발된 피부암은 피부 속의 흉터를 따라 깊게 퍼진다. 이러한 피부암은 혈관, 신경 또는 연골을 따라서 깊이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보는 것 보다 속으로 깊고 넓게 뿌리처럼 퍼져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재발된 피부암은 피부 속의 흉터를 따라 깊게 퍼지게 된다. 따라서 모즈 미세도식 수술은 이러한 피부암의 뿌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수술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술과 흉터 관리
수술 당일에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약을 먹고 있는 경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담배와 음주는 피부의 혈액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수술 후 상처 치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 약 1주일에는 금연과 금주가 중요하다.

수술은 피부를 국소마취제로 완전히 마취시킨 후 최소한의 정상피부를 포함해 눈으로 보이는 피부암을 떼어 낸다. 이후 떼어낸 피부암 조직을 열려 냉동절편을 만든 후 병리와 전문의가 현미경으로 관찰해 피부암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판독한다. 만약 현미

경 검사 상, 암 세포 병변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추가로 절제한 후 병리와 전문의가 다시 현미경 확인 절차를 거친다.

◇수술의 장점과 수술 후 부작용 관리
모즈 미세도식수술은 피부암의 뿌리가 존재하는 최소한의 조직만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광범위 절제를 막아 수술 후의 흉터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즉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피부봉합 시 수술자국을 피부의 정상적인 주름에 최대한 숨겨 흉터를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광범위한 외과적 절제술보다 치료 성공률이 높아 재발을 줄일 수 있으며 기능적, 미용적으로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수술 및 회복 과정은 일반적으 로 하루 안에 완료되기 때문에 환자는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수술에 동반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인 출혈, 이차감염, 위축성 반흔, 켈로이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큰 불편을 못 느낀다. 혹시 약간의 통증이 있더라도 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으며, 혹시 눈 근처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가 붓거나 멍이 들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모즈 미세도식 수술을 집도중인 피부과 김민성(오른쪽) 교수.

<조선대병원 제공>

청연한방병원,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42세 이하 100명 대상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광주시·광주시한의사회의 협약에 따라 '2020년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 기술을 추진해 난임여성의 건강과 지역의 출산율 향상 및 공공사업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6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하는 만 42세 이하의 난임 진단 여성 100명이다. 이들은 3개월간 한약 투여, 주 1-2회 침·뜸·약침 등의 집중치료가 이뤄지고 이후 3개월간 2주에 한번씩 내원해 침구치료를 받아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또한 치료 후 1년간 장기관찰로 임신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약제비 및 혈액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침구치료 등 일부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20일까지

지 청연한방병원 10층 여성의학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선정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청연한방병원은 여성의학센터를 운영하며 매년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 난임지원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사업에서 지정검사기관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돼 난임부부의 검사와 치료 모두 맡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연임신을 유도해 난임부부에겐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연한방병원 조현정 여성의학센터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의학을 통해 난임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소중한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광주지역 39개 한방병·의원 참여하며, 총 100여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 거주지에 가까운 한의원을 지정해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빛고을전남대병원, 개원 6주년... 종합병원 승격 통한 제2의 도약 다짐

개원 6주년을 맞은 빛고을전남대병원 이 종합병원 승격을 통한 지역거점병원으로 도약을 다짐했다.

빛고을전남대병원(병원장·이신석)은 개원 6주년인 지난 5일 당초 개원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통해 간단하게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신석 병원장은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6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진료센터로 위상을 굳혔다"면서 "이

제는 빛고을전남대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재도약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정형외과·류마티스내과·노년내과·신장내과·호흡기내과·소화기내과·순환기내과·감염내과·알레르기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신경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등 20여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개원 당시 8만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지난해에는 두 배를 넘는 17만여 명에 달했고, 수술 건수도 2014년 1445건에서 지난해 1879건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감염병, 접촉자 하루 7명 이하면 감소세

신종코로나 확산세 꺾이는 시점 예측 논문 '주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을 예측한 논문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바이오·뇌공학과 이광형 교수와 바이오브레인 김기성 대표(당시 대학원생) 연구팀은 2017년 5월 학술지 'BMC 바이오인포매틱스'에 감염병 확산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5년 5월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팀은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모두 가진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 뒤 환자의 접촉자 수, 감염 후 완치되기까지 시간(지속기간), 감염률 등 3가지 척도를 입력해 감염병 확산 추세를 관찰했다. 감염률은 환자 1명이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감염력과 지속기간을 토대로

계산했다.

연구팀은 어떤 감염병이든 초기에는 환자 수가 늘다가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사망하면 확산 경로를 차단되는 데다 감염된 환자들이 점차 회복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회복자 수가 감염병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의 지속기간(7.6일)과 감염률(33%)에 환자의 하루 평균 접촉자 수를 20명으로 가정해 네트워크 모델에 입력하면 회복자가 전체 인구의 17.35%에 이르렀을 때 감소세로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접촉자 수가 10명이라면 회복자가 전체 인구의 16.54%가 됐을 때 감염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치사율 100%인 최악의 감염병을 가정하더라도 접촉자 수가 7명 이하면 인구의 27%가 사망했을 때 증가세가 꺾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광형 교수는 "새로운 감염병 출현이 인류를 멸망시킬지에 대한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며 "어떤 감염병이든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이 존재한다는 점, 하루 평균 접촉자 수를 7명 이하로 줄이면 치명적인 감염병이라도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